삼성증권 SAMSUNG

주식전략팀 | 2014년 5월 3주 | No.02

삼성 Weekly

Samsung Weekly Investment Guide

CONTENTS

FORECAST

박정우의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외국인 코스피 먹방

Global Financial Market
Global Macro Monitor

삼성 Top 10
삼성 Top 10 유니버스
삼성 Top 10 Monitor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Monitor
글로벌 ETF 5

INFORMATION

Global Market Up & Down

The Money Show
국내 증시동향
국내 시장지표
증시 캘린더

Weekly Talk Talk!!!

Question

이번주 증시의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과 IT

Question

금주의 TOP-10 포트폴리오는?

CJ제일지당, 태영건설, 두산중공업,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KCC,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NAVER, 한국전력

Question

금주 주목해야 할 글로벌 주식은?

AT&T (T), 위성TV업체 디렉TV 500억에 인수

Question

글로벌 증시 자금동향은?

선진 +106억$, 신흥 +5억$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1주 만에 자금 유입 전환

박 정 우
02-2020-7029
jw107.park@samsung.com

박정우의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외국인 코스피 먹방

외국인 단기간에 1조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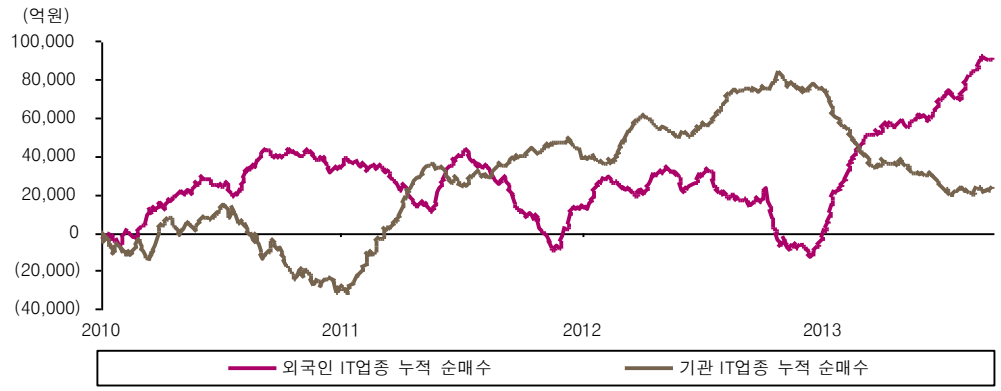
지난 주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단기간에 1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IT와 금융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외국인과 달리 국내 기관은 IT와 화학을 소폭 매수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기록, 외국인과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 시장을 이끈 것은 단연코 삼성전자였다.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는 주간 기준 2.9%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다시 재현되는 흐름을 떠 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4월과 양상이 다소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2,000pt 이상에서 차익실현보다는 상황을 유동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이 지난 4월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급을 둘러 싼 환경변화 때문이다.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 - 외국인과 환율

항상 수급은 중요하지만 이번 5월 증시는 특히나 수급 논리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첫째, 외국인 수급을 결정짓는 환율은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매수의 견인차 노릇을 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는 1,020원까지 하락한 후 1,020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연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점과 미국의 실질 금리하락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010원대로 하락할 것이다. 최근 당국의 외환방어를 감안하더라도 달러화 공급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원화 강세는 속도의 문제이지 레벨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화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루피화를 포함해서 대만과 일본의 통화도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원화의 강세 혹은 아시아 통화의 강세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외국인 IT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



자료: FnGuide

기관의 수급 – 환매 강도가 지난 번 보다는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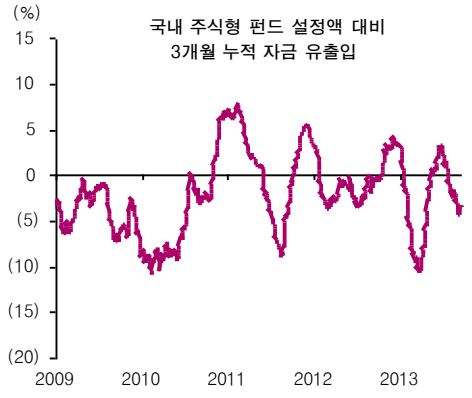
둘째, 이번에는 펀드 환매 강도가 약할 것이기 때문에 기관매도 흐름도 약할 것이다. 지난 4월 한달 동안 주식형 펀드에서 1조 6천억원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국내 기관은 1조 8천억원을 순매도했고 이것이 2,000pt 안착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5월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는 4,200억원(14일 기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4월에도 2,000pt 돌파 이후 본격적으로 펀드환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2,000pt를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펀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 펀드환매가 나타나도 그 규모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래 <그림2>를 보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 3개월 누적을 주식형 펀드 설정액과 비교한 것인데 일정한 밴드를 타고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 과거 10%까지 환매가 나온 적도 있으나 최근 추이를 보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은 설정액의 3~4%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4월말 기록한 4.4%가 펀드 환매의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아도 2006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보면 최근 펀드 환매에 나설만한 자금 유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펀드 환매의 규모는 4월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림3).

외국인의 코스피 먹방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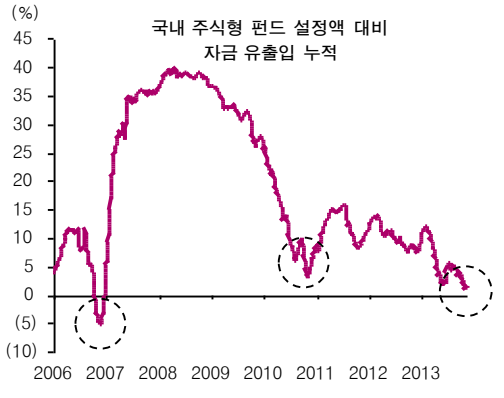
이번 코스피의 외국인 먹방을 경기와 실적이라는 펀더멘탈로 풀이할 필요는 없다. 그러려고 한다면 다소 논리가 어색할 것이다. 경기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실적은 더 하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율과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외국인 매매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결국 이번 증시는 수급과 환율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2,000pt를 둘러 싼 코스피의 치열한 공방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삼성전자 집중 매수처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삼성 그룹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정점 통과



자료: 금융투자협회,삼성증권

그림 3. 장기적으로 보아도 환매 여력이 없음



자료: 금융투자협회,삼성증권

박 정 우
02-2020-7029
jw107.park@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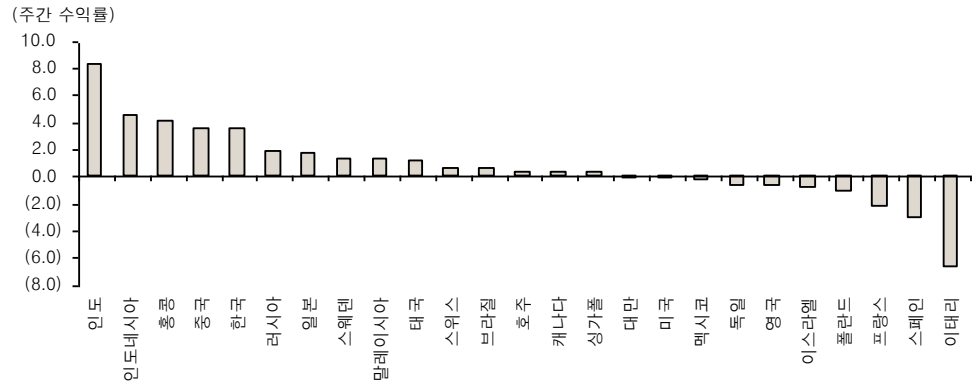
Global Financial Market

Key Point: 달러화의 방향성에 촉각을 세워야 할 때

- 이머징 증시(+2.0%)는 주간 기준으로 선진증시(-0.3%)대비 상승했다. 일등 공신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듯이 정치적 개혁에 대한 희망으로 총선결과가 임박한 인도(+8.2%)가 전체 아시아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4.4%)와 홍콩(+4.1%)과 중국(+3.5%)에 이어 한국(+3.5%)이 기여했다.
- 물론, 이러한 이머징 증시의 상승은 달러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인도 루피화는 주간 기준으로 +1.6% 상승했고 한국의 원화도 +1.5%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경기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경기회복 강도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면 장기금리 상승속도는 단기금리보다 훨씬 느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투자자들 생각이 반영되면서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평탄해지고 있고,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모두 평탄해지고 있다.
-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대응 비달러화 자산 전반에 대한 비중확대로 쏠리고 있다. 지난 주 시카고 선물거래소 달러화 매도 포지션이 이전 420억불 순매도에서 600억불 순매도로 다시 확대된 것을 보면 달러화 약세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지금은 이머징의 반등을 당분간 즐길 때인 듯 하다.

글로벌 주식시장

그림 1. 글로벌 주식시장 주간 변화율



자료: Thomson Reuters

박 정 우
02-2020-7029
jw107.park@samsung.com

Global Macro Monitor

Key Point: 또 하나의 빅 이벤트

- 지난 주 미국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하락했다는 소식은 미국 증시 최고점에서 차익실현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했다. 사실, 주간실업청구건수나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전망 서베이 지수 및 뉴욕 연준의 경기전망 서베이 지수는 모두 양호했기 때문이다.
- 이번 주는 매달 돌아오는 PMI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난 주를 정점으로 최근의 경기회복 강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2분기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 서베이 지표는 가장 앞선 경기지표라는 점에서 민간 서베이 전문업체인 Markit이 발표하는 주요국의 PMI 지표는 중요하다. 중국은 여전히 경기확장국면으로 여겨지는 50이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유럽은 경기확장 국면인 50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증시의 추가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다.
- 수요일에 있을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발표와 구로다 총재의 기자회견도 시장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서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관심은 많이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미국의 주택경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존주택 판매를 확인하면 한 주가 마감된다. 이번 달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보다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경기 둔화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는 앞으로 시장의 주된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주요 경제 및 이벤트 일정

표 1. 이번 주 주요 일정

일정	국가/지표	주요 내용
5/21(수)	유럽/5월 소비자 기대지수	신용사이클 회복의 부재와 높은 실업률로 여전히 부정적
	일본/5월 통화정책회의	일본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최소화되면서 경기회복세 유지
5/22(목)	중국/5월 HSBC PMI	여전히 경기둔화구간인 50 이하를 기록
	유럽/5월 Markit PMI	제조업 PMI는 전월과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 예상
	미국/5월 Markit PMI	확장구간인 50 이상이나 전월과 유사한 수준
	미국/4월 기존주택매매	전월보다 판매는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임

자료: 삼성증권

이 남 룡
02-2020-7035
nr.lee@samsung.com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KOSPI	초과 수익률
(2014. 1. 2 ~ 5. 16)	+6.86%	+0.10%	+6.75%p

종목	주가(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목표비중)	수익률
CJ제일제당 (097950)	325,000	– 원화 강세로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부각 – 바이오부문 중국 라이신 가격 반등 기대감에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	5/2 (10%)	(+4.8%)
태영건설* (009410)	6,560	– 자체 사업 분양 호조와 포천 복합화력 발전소 가동으로 이익 정상화 – SBS 지분 및 보유 우량자산 1.3조원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4/23 (10%)	(+6.5%)
두산중공업 (034020)	34,500	– 신고리 5·6호기 발주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수주 모맨텀 재개 예상 – 양호한 외국인 수급 및 기술적 지표로 단기 트레이딩 기회 출연	4/15 (10%)	(–4.8%)
아모레퍼시픽 (090430)	1,450,000	– 수익성 높은 면세점과 온라인 채널 판매 증가로 국내 실적 개선세 – 높은 브랜드력 기반 중국 화장품 시장 M/S 증가로 해외 수출 본격화	3/27 (10%)	(+17.4%)
코웨이* (021240)	83,900	– 국내 렌탈 사업 호조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 중국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공기청정기 수출 고성장 전망	2/27 (10%)	(+20.7%)
KCC (002380)	590,000	–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전망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시 동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가치 부각	2/18 (10%)	(+16.4%)
현대모비스 (012330)	297,500	–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도래 및 Capa 확대의 최대 수혜주 – 자동차산업 상승사이클 진입으로 완성차대비 주가 프리미엄 확대 예상	1/2 (10%)	(+3.6%)
SK하이닉스 (000660)	42,250	– 메모리 시장 과점화 · 제한적인 추가증설 등으로 업황 사이클 상승 전망 –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호조로 소니향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 부각	1/2 (10%)	(+15.9%)
NAVER (035420)	752,000	– 게임 · 광고사업 등으로 5년내 전체 매출 50%이상이 라인에서 발생 – 페이스북이 SNS 기업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라인 가치 재평가 기대	1/2 (10%)	(+2.6%)
한국전력 (015760)	41,800	– 13년 9.4% 전기료 인상과 원화 강세 진행으로 2014년 실적 개선 전망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내 원전비중 증가로 저비용 발전량 증가 예상	1/2 (10%)	(+21.2%)

참고: * 비커버리지 종목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ETF	주가(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KODEX삼성그룹 (102780)	6,165	– 개별 종목보다 그룹주 전체에 대한 최적 접근 – 이동평균선 결집 후 정배열 진입 패턴 완성으로 기술적 매수타이밍	5/16	(+1.3%)

아모레퍼시픽, 삼성 글로벌 컨퍼런스 2014 후기

최근 삼성 글로벌 컨퍼런스 2014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을 2020년까지 각각 1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 일차적 목표. 중국의 경우 라네즈, 설화수 중심으로 1분기 백화점 채널 매출이 두자릿수 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업체와 차별화. 아직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의 성장 여력이 높다고 판단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유니버스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2013	2014(E)	전년대비 (%)	P/E (배)	P/B (배)	수익률 (%) 1개월
1	SK하이닉스	30,006	3,380	4,497	33.0	8.4	1.6	12.2
2	현대모비스	28,961	2,924	3,173	8.5	7.6	1.2	(3.1)
3	한국전력	26,834	1,519	5,447	258.6	10.4	0.5	6.8
4	NAVER	24,788	524	792	51.2	37.4	8.8	0.3
5	아모레퍼시픽	9,103	370	444	20.0	28.7	3.4	11.2
6	코웨이	6,471	339	386	13.7	21.0	5.1	8.1
7	KCC	6,207	232	292	26.0	21.5	1.1	15.5
8	CJ제일제당	4,445	345	510	47.6	18.5	1.4	9.6
9	두산중공업	3,662	958	976	1.9	15.6	0.7	(6.8)
10	태영건설	508	90	N/A	N/A	N/A	N/A	11.0
11	삼성전자	236,031	36,785	36,249	(1.5)	7.8	1.3	3.5
12	현대차	61,052	8,315	8,613	3.6	7.6	1.0	(3.1)
13	LG화학	18,494	1,743	1,818	4.3	12.3	1.4	(0.2)
14	삼성물산	11,425	433	640	47.7	20.4	0.9	13.0
15	LG디스플레이	9,894	1,163	1,154	(0.8)	14.1	0.9	(3.2)
16	현대글로비스	9,638	637	691	8.4	16.6	3.1	1.0
17	SK C&C	8,050	225	268	19.0	15.8	2.3	12.2
18	한라비스테온공조	4,943	364	420	15.5	14.0	2.6	10.5
19	호텔신라	3,511	87	148	71.1	28.0	4.2	10.5
20	파라다이스	3,433	134	148	10.3	24.9	3.7	6.2
21	에스원	3,082	129	194	50.2	22.2	2.7	(0.6)
22	LS	2,418	366	553	51.1	9.4	0.9	(5.4)
23	SK네트웍스	2,355	241	275	14.2	12.1	0.8	(2.1)
24	금호타이어	1,864	346	407	17.7	8.9	1.5	(1.2)
25	대상	1,508	156	168	7.8	13.2	1.8	4.8
26	SKC	1,175	124	168	35.4	11.6	0.9	(0.9)
27	한미약품	1,111	62	78	26.7	18.2	2.2	2.2
28	현대상사	679	22	35	59.4	9.0	1.0	(3.2)
29	한진칼	632	29	105	263.3	9.2	0.9	(11.6)
30	테라세미콘	161	1	9	502.5	12.7	2.1	(3.6)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밸류에이션 지표는 12개월 선행 기준
계열사 – 삼성전자, 에스원, 삼성물산, 호텔신라
1% 이상 지분보유 – 에스원, 호텔신라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음영 처리된 10개 종목은 현재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20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10개 종목 외에 투자 유망 종목으로 관리하는 유니버스입니다

홍 승 표
02-2020-7038
seoungpyo.hong@samsung.com

삼성 Top 10 Monitor

Top 10 Weekly News Comment

- **아모레퍼시픽 (5/14):**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있었던 방문판매 대리점주들과의 갈등 이후 주춤해진 방문판매 매출을 면세점 판매로 만회하고 있다. 절반을 훌쩍 넘었던 화장품 방문판매 매출 비중은 20%대로 줄어든 반면 '뷰티(Beauty) 한류'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보면 이전과는 매출 비중이 꽤나 달라졌다.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유통채널인 방문판매 매출 비중이 20%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과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매출의 50% 이상이 방문판매에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영향력이 절반 넘게 줄어든 셈이다.
- **두산중공업 (5/9)**: 두산중공업(A+), 두산인프라코어(A), 두산건설(BBB), 두산타워(A-) 등 두산그룹 4개사는 15일 사모사채 등을 기초로 29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다. 지난 8일 만기였던 두산건설의 사모채 500억원 비롯해 두산인프라코어 1000억원, 두산중공업 900억원, 두산타워 500억원 규모의 사모채 상환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 **CJ제일제당 (5/16)**: 지난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60개사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조 클럽에 새롭게 진입한 곳은 두산중공업, NH농협생명(대표 나동민),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 등 4개사였다. CJ제일제당은 매출액이 2012년 9조8천775억 원에서 지난해 10조8천477억 원으로 9.8% 상승했다.

Top 10 Analyst Comment

종목명	증권사	투자포인트
CJ제일제당	교보	– 가공식품 사업부 구조조정 효과 및 원화 강세로 수익성 개선세 부각 – 라이신 가격 반등으로 주력 사업부인 바이오 사료 사업부의 흑자전환 기대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375,000원 유지
코웨이	현대	–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매출 비중이 증가하며 성장성 부각 – 막강한 렌탈비지니스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1인가구내 점유율 확대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100,000원으로 상향
SK하이닉스	KB	– PC 디램 가격 호조로 2분기 역시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시현 가능성 부각 –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8배 수준으로 글로벌 메모리 업체대비 저평가 메리트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50,000원 제시
태영건설	키움	– SBS미디어 그룹 지분을 포함하여 1.3조 수준의 우량자산을 보유한 저평가 자산주 – 2014년은 마산메트로 시티 자체사업 진행으로 수익성 턴어라운드의 원년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000원 제시
NAVER	KDB대우	– 라인 비즈니스 커넥트, LINE 뮤직등의 신규 수익 채널 확보로 수익성 부각 – 라인 가입자의 안정적인 증가와 트래픽 상승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 보유 –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1,080,000원 제시

자료: Fnguide

홍 승 표
02-2020-7338
seoungpyo.hong@samsung.com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종목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경창산업* (024910)	– 중국내 한류 콘텐츠 유통 시장 확대로 드라마 판권 수출 대금 상승 기대감 부각 – 국내 IPTV VOD 유료화 정책 트렌드로 국내 콘텐츠 사업 수익성 개선 – 올해 예상 순이익 300억원 기준 PER13배로 미디어 콘텐츠 업종내 가장 저평가	5/14	(–1.2%)
기가레인* (049080)	–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대리석 국내 3위, 플라스틱 첨가제인 합성왁스 국내 1위 업체 –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인조대리석 공장의 생산능력 2배로 증설 완료 – 화재 복구 완료, 고객사인 한샘의 고성장에 따라 5월부터 빠른 매출 증가를 예상	5/14	(+0.4%)
SBS콘텐츠허브 (046140)	– 중국내 한류 콘텐츠 유통 시장 확대로 드라마 판권 수출 대금 상승 기대감 부각 – 국내 IPTV VOD 유료화 정책 트렌드로 국내 콘텐츠 사업 수익성 개선 – 올해 예상 순이익 300억원 기준 PER13배로 미디어 콘텐츠 업종내 가장 저평가	5/9	(–0.8%)
라이온켐텍* (171120)	–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대리석 국내 3위, 플라스틱 첨가제인 합성왁스 국내 1위 업체 –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인조대리석 공장의 생산능력 2배로 증설 완료 – 화재 복구 완료, 고객사인 한샘의 고성장에 따라 5월부터 빠른 매출 증가를 예상	5/2	(+6.0%)
SK C&C* (034730)	– SK엔카의 중고차 유통사업 고성장, 중고 휴대폰 유통사업 본격화로 성장 동력 부각 – 지난 4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SK건설 및 SK네트웍스 정상화에 따른 지분법손익 개선 – 올해 예상 순이익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4,800억원으로 실적 모멘텀 부각	4/23	(+9.5%)
팜스토리* (123100)	– 원래료인 옥수수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율 하락 효과가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 –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원화강세로 인한 원가부담 완화 효과 – 자회사 서울사료의 원재료 가격 하락, 마니커의 육계 가격 회복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4/14	(+15.5%)
태영건설* (009410)	– 자체사업인 마산메트로시티 분양 호조와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이익 정상화 – SBS지분과 포천복합화력 발전소, 전주 · 창원부지 등 1.3조원 수준의 우량 자산 보유 – 올해 예상 순이익 750억원으로 PER 5.9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3/27	(+7.5%)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02-2020-7306
e.trading@samsung.com

Global Best 11

글로벌 Best 11

글로벌 Best 11 누적 수익률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MSCI World& China	초과 수익률
(2013. 1. 2. ~ 2014. 5. 15.)	-3.62%	-0.82%	-2.80%pt

종목 (티커)	시장	주가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미국 산업재 ETF (XLI)	미국	USD 53.02	-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 3M 등 미국 대표 산업재 보유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 강세 지속 전망	5/9 (+0.1%)
AT&T (T)	미국	USD 36.52	- 연간 배당률이 5%를 상회하는 미국 대표 배당주 - 유선전화 서비스 종료 및 고마진 무선 서비스 사업 성장 전망	4/16 (+2.4%)
스타벅스 (SBUX)	미국	USD 69.85	- 안정적 매출의 미국과 더불어, 중국·인도 등 해외 매출 성장세 기대 - 단순 커피 프랜차이즈를 넘어 종합 F&B 업체로의 변화를 모색	3/26 (-6.4%)
UPS (UPS)	미국	USD 100.46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e-commerce 거래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 -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건비 및 기타비용 감소 전망	3/26 (+2.9%)
미쉐린 (ML)	프랑스	EUR 89.36	- 최근 캐나다 공장을 정리하는 등 공장수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 -저평가 매력 부각되고 있으며 타이어 매출의 안정적 성장 기대	3/26 (+0.2%)
중국왕왕식품 (151)	홍콩	HKD 11.96	- 중국 1가구1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유제품 시장 내 가파른 성장 예상 - 중국 정부의 내수주 및 서비스 산업 성장 추진의 수혜 기대	2/21 (+5.7%)
엑슨 모빌 (XOM)	미국	USD 100.78	- 경쟁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및 ROE에도 밸류에이션 저평가 - 말레이시아 2억 큐빅피트 규모의 신규 천연가스 유전에서 생산 시작	1/27 (+6.3%)
구글 (GOOGL)	미국	USD 529.12	- 적자 사업부인 모토롤라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로봇업체 인수합병 및 팍스콘과의 제휴를 통한 로봇사업 본격 진출	1/2 (-5.7%)
퀄컴 (QCOM)	미국	USD 79.78	- 범용성을 앞세운 플랫폼 올조인을 통해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 - 분기 배당금 인상 및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 지속	1/2 (+7.4%)
존슨앤존슨 (JNJ)	미국	USD 100.69	- 연이은 신약 출시로 제약 사업부문 매출 호조세 지속 - 미국 FDA로부터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 승인되며 기대감 상승	1/2 (+9.9%)
폭스바겐 (VOW3)	독일	EUR 187.70	- 전체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매출 증가 지속 - 리터당 111km를 주행하는 XL1 개발로 연비관련 기술 우수성 입증	1/2 (-8.1%)

참고: 편입비중은 균등하게 배분. 시차 관계상 주가는 전일종가로 작성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02-2020-7306
e.trading@samsung.com

Global Best 11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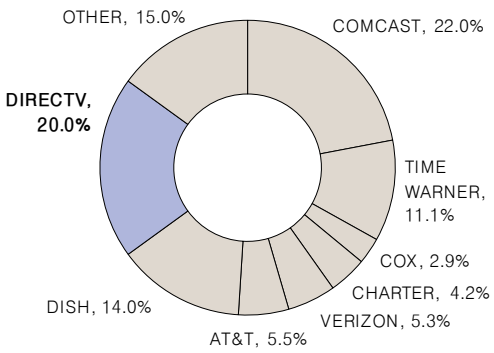
AT&T (T), 위성TV업체 디렉TV 500억에 인수

AT&T가 위성TV업체인 디렉TV를 500억 달러에 인수. 인수 합의안은 2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 인수가는 디렉TV 주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총 500억 달러로 AT&T는 현금과 자사의 주식으로 이를 지불할 예정. 인수를 통해 AT&T는 미래 사업의 중점으로 생각해온 비디오 산업의 초석 마련.

그림 1.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 위성 TV 시장 규모 추이



참고: 2013년 기준
자료: CableTV.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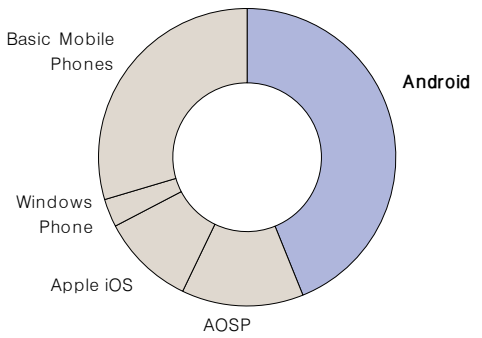
구글 (GOOGL), 오라클의 자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2010년부터 구글과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자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시작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글을 중심으로 구축된 안드로이드 특허 진영이 타격을 입게 됨. 오라클에 최대 1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 가능.

그림 3.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



참고: 2014년 1분기 기준
자료: ABI Research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02-2020-7306
e.trading@samsung.com

Global ETF 5

글로벌 ETF 5

펀드명 (티커)	주가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USD 87.14	–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시스코 시스템즈 등으로 IT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대다수 글로벌 IB는 2014년 미국시장에서 매수 유망한 섹터로 IT 섹터 추천	1/3	(+0.6%)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XLI)	USD 53.02	– 미국 내 산업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3M, 유니온 퍼시픽 등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가 2014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전망	1/3	(+2.6%)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XLY)	USD 63.28	– 미국 내 경기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컴캐스트, 아마존닷컴, 월트디즈니, 홈데포, 맥도날드, 포드 등 – 미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로 자동차 등 경기소비재 수요 증가세 지속될 전망	1/3	(−4.6%)
iShares Europe (IEV)	USD 49.46	– 유럽 대표종목 지수인 S&P Europe 350지수를 추종하는 ETF – 주요 보유종목은 네슬레, HSBC홀딩스, 노바티스, 로슈, 보다폰 등 –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및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대표적 유럽 투자 ETF인 IEV 강세 지속 전망	1/3	(+6.6%)
iShares MSCI Europe Financials (EUFN)	USD 25.31	– 유럽 금융섹터 투자 ETF로 비교적 최근 설정(2010년 2월) – 주요 보유종목은 HSBC홀딩스, 방코 산탄데르, 알리안츠, BNP파리바 등 – 유로존 경기 회복과 함께 유럽 금융주가 강세를 주도할 전망 – 그리스, 스페인 등의 부실 금융기관 주가는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우세	1/3	(+3.6%)

참고: 티커 QQQ, XLI, XLY는 미국 기업 대상의 ETF
티커 IEV, EUFN은 유럽 기업 대상의 ETF로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금주의 ETF – EUFN: iShares MSCI Europe Financials

- 예상을 하회하는 0.2%의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유럽 금융주 급락. 특히 프랑스는 GDP가 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투심을 악화시킴
- 주요 보유 중 도이치은행, 바클레이즈, UBS, BNP 파리바 크게 하락. 반면, 유로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HSBC 홀딩스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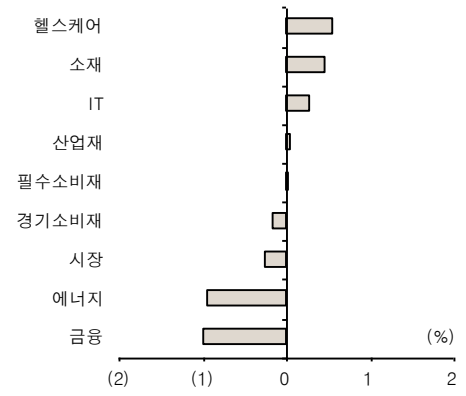
Global Market Up & Down

Key Point: 고평가 부담으로 바이오 · IT 업종 약세

- 지난주 선진국 시장은 뚜렷한 움직임 없던 반면, 신흥국 시장은 강세로 마감. 인도 총선을 앞두고 인도 증시가 상승한 것과 IT 섹터에서 삼성전자 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
- 미국 옥수수 파종 진척도가 59%로 5년 평균치 상회. 생산 증가 전망되며 선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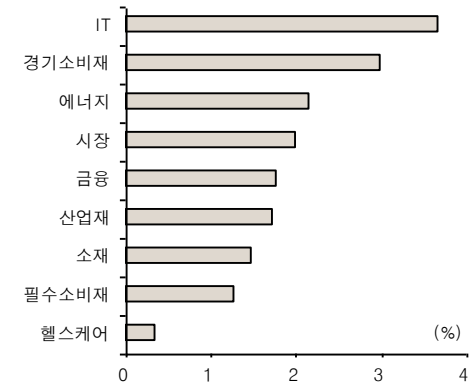
글로벌 마켓: 선진국 VS 신흥국

그림 1. MSCI 선진국 주간 업종별 등락률



참고: 달러화 기준, 5월 7일~5월 14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MSCI 신흥국 주간 업종별 등락률



참고: 달러화 기준, 5월 7일~5월 14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주요 지역 및 상품가격 등락률

표 1. MSCI 주요 지역별 증시 등락률

(%)	1주	1개월	연초 이후
한국	3.84	2.96	2.37
중국	3.73	-5.48	-6.05
일본	2.76	-4.35	-6.66
아시아(일본제외)	2.55	4.47	3.56
신흥시장	1.79	2.77	1.97
글로벌	0.93	3.47	2.20
선진시장	0.64	3.36	2.03
미국	0.52	2.94	2.10
선진유럽	0.17	5.71	3.56

참고: 달러화 기준, 5월 14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표 2. 주요 상품가격 동향

(%)	1주	1개월	연초 이후
원당	5.2	9.0	14.1
구리	2.3	3.5	-6.5
Brent	2.3	0.9	-1.1
은	2.1	0.2	0.8
WTI	1.3	-2.7	3.0
LME지수	1.2	1.3	-2.0
아연	1.0	-0.1	0.2
금	0.8	0.1	7.6
CRB지수	0.3	-1.4	9.6
콩	0.1	-2.0	13.7
커피	-1.4	-1.3	71.6
철광석	-1.4	-11.5	-23.3
옥수수	-6.2	-2.1	14.9
천연가스	-8.2	-4.8	0.2

참고: 5월 15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임 은 혜
02-2020-7027
e0124.lim@samsung.com

The Money Show

글로벌 자금 흐름: 글로벌 주식형 펀드 110억 달러 순유입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1주 만에 자금 유입 전환. 신흥지역은 지역분산펀드로 재차 자금이 쏠렸으며, 선진지역은 북미지역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진행.

주식자산으로 소폭 유입되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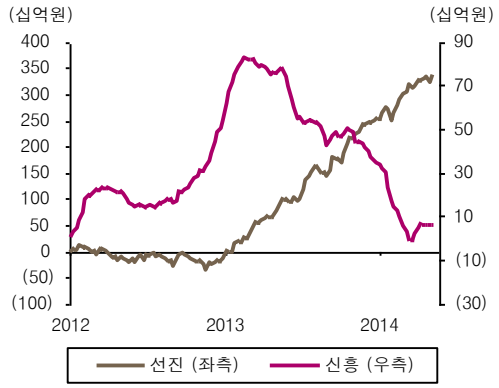
전주 글로벌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이 진행됐으나,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대비 유입 강도는 저조.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선진국 채권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 신흥지역 채권형 펀드도 7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며 견조한 상황. 반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상황을 살펴보면, 신흥지역은 여전히 GEM(신흥지역분산펀드), 선진지역은 북미지역 ETF위주의 패시브 형태의 자금 유입만 지속. 향후 글로벌 금리 방향이 자산간 자금 유출입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

표 1.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백만달러)	순유입액			자산규모		
	주간	2주 전	연초 이후	2013년 말	현재	증감률 (%)
GEM(Global Emerging Fund)	597	−658	−11,155	442,283	442,176	0.0
아시아(일본제외)	−286	−8	−13,563	303,810	294,512	−3.1
라틴아메리카	142	55	−2,731	39,336	38,328	−2.6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4	−97	−1,747	43,629	40,306	−7.6
신흥시장 합계	458	−708	−29,196	829,057	815,321	−1.7
글로벌	1,662	2,010	24,242	1,198,174	1,320,949	10.2
아시아 태평양	548	−32	11,817	251,293	256,716	2.2
서유럽	1,928	1,210	39,404	839,731	980,445	16.8
북미	6,450	−11,744	11,092	3,253,444	3,365,667	3.4
선진시장 합계	10,588	−8,556	86,555	5,542,641	5,923,777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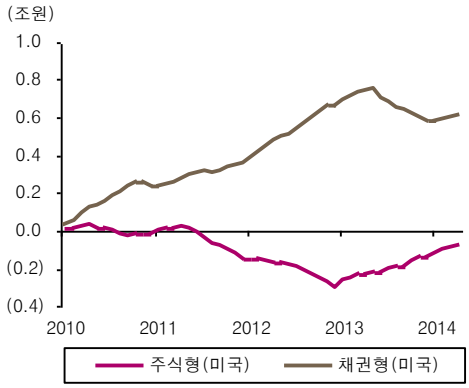
참고: 2014년 5월 14일 기준. ETF포함
자료: EPFR

그림 1. 지역별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 누적



참고: 2012년 이후 누적
자료: EPFR

그림 2. 미국 자산별 자금 유출입 추이



참고: 2010년 이후 누적
자료: ICI

주요 아시아 국가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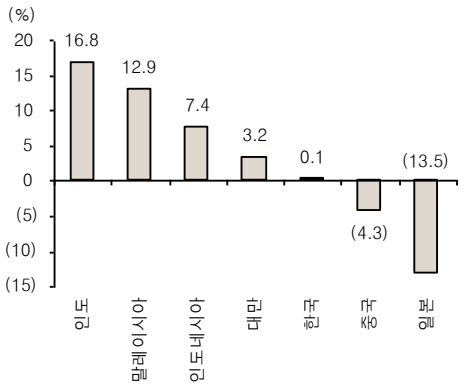
전주 신흥 아시아 증시로 외국인의 견조한 순매수 흐름이 이어짐. 선진 증시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관심이 지속되는 흐름.

표 2. 주요 아시아 국가 외국인 순매수 동향

(백만달러)	주간	4주 누적	연초 이후	2013년 이후
한국	319	197	79	4,941
대만	255	1,709	5,777	14,205
일본	−1,539	2,255	−23,175	134,560
인도	610	1,748	6,659	24,851
태국	6	253	−9	−6,526
인도네시아	110	420	3,120	982

참고: 2014년 5월 14일 기준, 일본은 1주 지연
* 일본은 십억엔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3. 아시아 주요국 연초 이후 증시 성과



참고: 5월 15일 기준
자료: Bloomberg

국내 자금 동향

코전주 코스피 2,000pt 회복에도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된 점이 고무적. 올해 들어 주식형 펀드 환매가 집중되는 지수대가 점차 상승하며 전주 1,950pt 위에서도 자금이 순유입되는 점이 향후 지수 방향에 긍정적인 상황.

표 3. 주간 국내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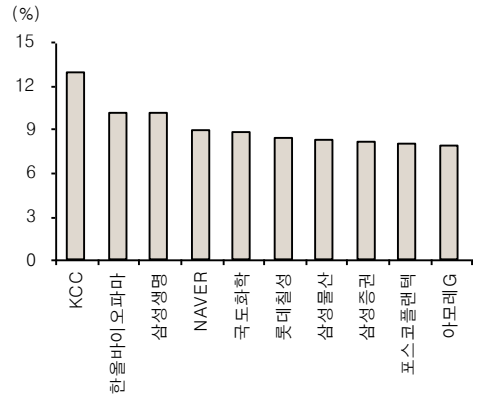
(십억원)	주간 순유입				자산규모		
	주간	2주 전	3주 전	연초 이후	2013년말	현재	변화(%)
수익증권*	4,069	(1,489)	(4,635)	8,225	241,731	248,307	2.7
주식형(ETF제외)	201	285	(511)	(869)	85,378	63,185	(26.0)
국내투자	238	327	(485)	(305)	65,660	63,185	(3.8)
해외투자	(37)	(42)	(26)	(564)	19,718	18,987	(3.7)
혼합형	506	69	(91)	983	32,569	33,852	3.9
채권형	(146)	410	504	72	56,057	57,341	2.3
단기금융(MMF)	3,508	(2,252)	(4,539)	8,039	67,726	74,943	10.7

참고: * 증권과 단기금융의 합
2014년 5월 14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백 찬 규
02-2020-7014
ck.paik@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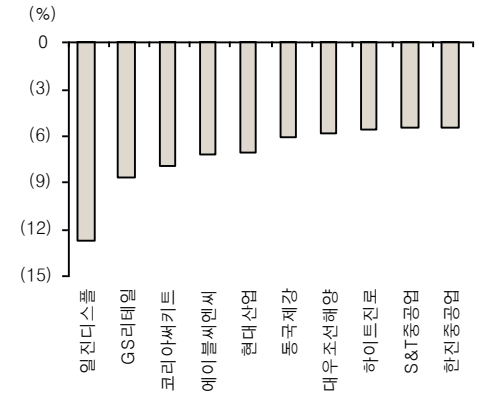
국내 증시동향

그림 1. KOSPI200 주간 상승률 상위 10 종목



참고: 2014년 5월 12일 ~ 5월 16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2. KOSPI200 주간 하락률 상위 10 종목



참고: 2014년 5월 12일 ~ 5월 16일
자료: 한국거래소

표 1. 주간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전자	3,113	1	한화케미칼	564
SK하이닉스	1,310	2	아모레퍼시픽	302
현대차	884	3	GS리테일	298
한국전력	828	4	LG생활건강	257
신한지주	796	5	삼성증권	218
KB금융	659	6	삼성전자우	214
엔씨소프트	523	7	KCC	204
기아차	516	8	코웨이	162
오리온	483	9	하나투어	155
POSCO	477	10	대우조선해양	153

참고: 2014년 5월 12일 ~ 5월 16일
자료: 한국거래소

표 2. 주간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NAVER	1,260	1	엔씨소프트	850
삼성전자	1,041	2	한국전력	699
한화케미칼	463	3	SK이노베이션	564
삼성전자우	449	4	삼성전기	562
삼성중공업	395	5	삼성화재	408
KCC	354	6	대우조선해양	391
LG생활건강	338	7	SK하이닉스	328
삼성증권	284	8	오리온	275
아모레퍼시픽	265	9	현대중공업	244
하나금융지주	253	10	POSCO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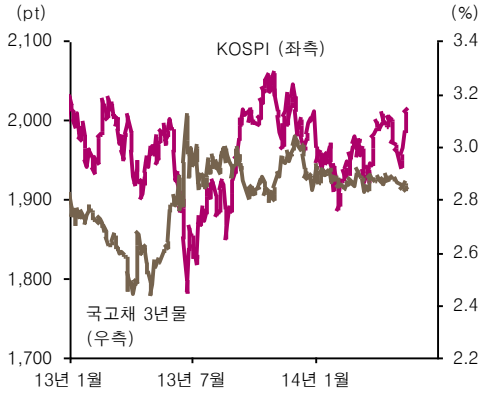
참고: 2014년 5월 12일 ~ 5월 16일
자료: 한국거래소

국내 **시장지표**

(십억원)	지표	금주말(5/16)	전주말(5/9)	주간증감	4월말(4/30)
국내주식	종합주가지수	2,013.44	1,956.55	56.9(2.9%)	1,961.79
	거래량(백만주)	233	205	27	227
	거래대금(십억원)	4,069	3,484	584	3,929
	KOSDAQ지수	557.59	550.19	7.4(1.3%)	559.34
	거래량(백만주)	393	291	102	310
	거래대금(십억원)	1,981	1,753	229	1,683
채권	국고채(3년)	2.84	2.84	0.00	2.87
	회사채(3년 AA-)	3.26	3.26	0.00	3.30
	CD(91일)	2.65	2.65	0.00	2.65
외환	원/달러	1,024.00	1,024.40	-0.40	1,033.20
	엔/달러	101.57	101.76	-0.19	102.27
	원/100엔	1,009.56	1,006.78	2.78	1,007.03
은행권*	요구불예금	91,953	93,954	-2,001	93,448
	저축성예금	888,102	884,581	3,521	886,707
	금전신탁	137,653	133,507	4,146	136,677
증권**	고객예탁금	14,795	14,844	-50	14,885
투신권**	주식형펀드	82,172	81,866	306	81,512
	혼합형펀드	33,852	33,523	329	33,287
	채권형펀드	57,341	57,328	12	57,338
	MMF	74,943	74,096	847	7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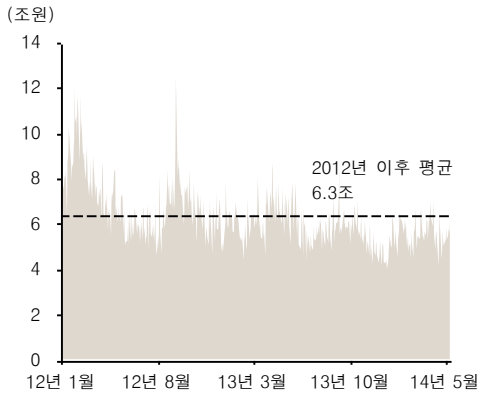
참고: * 5월 13일; ** 5월 14일 기준, 설정원본 기준

주가지수와 시중금리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시장 거래대금 동향



자료: 한국거래소

증시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5/19	20	21	22	23
	(한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4월 -/E -/P -0.5%)	**(미국)**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5월2주 -/E -/P 3.6%) 4월 FOMC 의사록 공개 **(유럽)** 5월 소비자기대지수 (5월 -/E -7.9/P -8.6)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5월2주 -/E -/P 297) 4월 기존주택매매(전월대비) (4월 -/E 2.0%/P -0.2%) 4월 경기선행지수(전월대비) (4월 -/E 0.3%/P 0.8%) **(중국)** 5월 HSBC 제조업PMI (5월 -/E 48.2/P 48.1) **(유럽)** 5월 마킷 유로존PMI-제조업 (5월 -/E 53.5/P 53.4)	**(미국)** 4월 신규주택매매(천건) (4월 -/E 428/P 384)
26	27	28	29	30
*** 증시휴장 - 미국, 영국 등**	韓 4월 내구재 주문 3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5월 소비자기대지수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유 3월 M3 통화공급 5월 경기기대지수 5월 소비자기대지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분기 GDP 4월 매결주택매매 韓 4월 경상수지 4월 상품수지	美 4월 개인소득 4월 개인소비지수 韓 6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4월 산업생산 4월 광공업생산 (1일 발표) 5월 수출 5월 수입 中 (1일 발표) 5월 제조업 PMI
6/2	3	4	5	6
美 5월 ISM제조업지수 4월 건설지출 *** 증시휴장 - 홍콩, 대만, 중국 등**	美 4월 제조업수주 韓 5월 소비자물가지수 中 5월 HSBC제조업 PMI 유 4월 실업률 5월 소비자물가지수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5월 ADP취업자 변동 4월 무역수지 5월 ISM비제조업지수 유 4월 생산자물가지수 1분기 GDP *** 증시휴장 - 한국 등**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韓 1분기 GDP(최종) 유 ECB 통화정책회의 4월 소매판매	美 5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변동 5월 실업률 *** 증시휴장 - 한국 등**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이 페이지는 공백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백 페이지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주식전략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14층 주식전략팀 / Tel: 02 2020 8000
■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